

협회 소식

제2차 이사회 개최



주택협회는 지난 4월 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파크하얏트호텔에서 이방주 회장을 비롯한 신희 부회장, 윤오수 상근부회장 등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우종합건설(주)의 신규 회원 가입을 승인하고 5년 연속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주)국제종합토건, (주)동신, 범양건영(주), 주)신일건업 등 4개사에 대해 1년간 회원 자격을 정지하기로 의결했다. 건설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임시국회에 발의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 등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제 도입과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시기 조정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협회에 요구했다. 한편 회의를 마친 후에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헌혈사랑나눔운동'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유 장관은 "헌혈은 혈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건설업체와 함께하는 '헌혈사랑나눔운동'을 제안했다. 이어 "혈액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헌혈할 수 있는 사람은 감소하고 있다"며 "건강한 직장인이 헌혈 회원 가입과 '헌혈약정식' 체결을 통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도 헌혈을 통한 사회 공헌 기업 홍보와 '헌혈의 날' 포상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오수 상근부회장 홍조근정훈장 서훈

한국주택협회 윤오수(尹五洙) 상근부회장은 32년간 공직생활의 직무에 정려한 공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홍조근정훈장을 서훈 받았다. 윤 부회장은 건설부에서 행정사무관으로 출발해 건설교통부 이사관에 이르는 동안 200만 호의 주택건설과 분당, 일산 등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에 지대한 공적을 남겼고, 물류시설 확

충과 유통단지 개발 및 물류정보망 확충, 4차 국토계획수립과 항공 안전대책 마련 등에도 크게 기여했다. 건설교통부 통합 무렵에 수송정책실 물류시설 과장과 기획관리실 행정조직관리 담당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윤오수 부회장은 서울대학

교 행정대학원에서 '복합화물터미널사업 활성화'를 위한 물류정책 연구'로 1997년 8월에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CA항공사고수습대책본부장 및 FIFA 월드컵 안전대책 위원 그리고 국토정책국장을 역임하는 동안에는 경원대학교 대학원에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개발사업의 갈등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로 2003년 12월에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할 정도로 열정이 대단했다. 제회 공인중개사, 제4회 심리상담사, 제회 물류관리사, 제회 결핵상담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관심이 많다. 또한 그는 실제 생활에도 그동안 배운 것을 접목하는데 직장에서는 다정다감한 성품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모든 직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동료나 선·후배는 물론 각계각층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유명하다.



윤오수 상근부회장, 머니투데이 '2006 대한민국 아파트 브랜드 대상' 수상자 시상

지난 27일 한국주택협회 윤오수 상근부회장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건설교통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보증(주) 등이 후원하는 '2006 대한민국 아파트 브랜드 대상'에 참석하여 수상 업체를 시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머니투데이 홍선근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한국주택협회 윤오수 부회장, 황해성 건설교통부 공공기관이전추진 부단장, 대한건설협회 최중수 부회장 등과 수상 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 8개 부문 11개 업체의 시상이 있었다. 이날 대상인 건설교통부장관상에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선호도 부문에서는 대우건설 '푸르지오'(종합)와 이수건설 '브라운스톤'(전문)에 돌아갔다. 또한 인지도 부문은 대림산업 'e-편한세상'과 현진 '에버빌'이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신뢰도 부문에서는 GS건설과 대우자동차판매 건설부문이 뽑혔다. 이어 이머징 브랜드 부문에서는 경남기업 '아너스빌'이, 유망 브랜드 부문에서는 신일건업 '유토빌'이, 친환경 브랜드 부문에서는 한화건설 '꿈에그린'이, 네티즌 부문에서는 삼성물산 건설부문 '래미안'이 수상했다.

2006 대한민국 아파트 브랜드 대상 시상 내역

구분	수상업체 및 브랜드	
대상(건설교통부장관상)	삼성물산 건설부문 '래미안'	
최우수상	선호도	대우건설 '푸르지오'
	신뢰도	GS건설
	인지도	대림산업 'e-편한세상'
		현진 '에버빌'
이머징 브랜드	경남기업 '아너스빌'	
유망 브랜드	신일건업 '유토빌'	
친환경 브랜드	한화건설 '꿈에그린'	
네티즌상	삼성물산 건설부문 '래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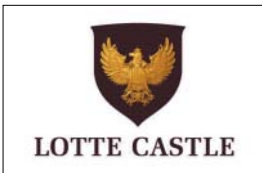
회원사 소식



**현대건설,
이종수 신임사장 선임**

현대건설은 3월 30일 계동 사옥 대강당에서 제 56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종수(李鍾洙) 부사장(경영지원본부장)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이종수 신임 현대건설 사장은 서울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 현대건설에 입사, 재정, 인사, 기획, 감사 등 주요 보직을 거치고 2004년 1월부터 현대건설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재직해왔다. 한편 이날 현대건설은 주주총회를 통해 2005년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한편, 사내 이사에 이종수 신임사장을 선임하고 기존 사내 이사인 해외사업본부장 여동진 전무, 관리본부장 김선규 전무와 4명의 사외 이사를 유임시켰다.

롯데건설, CI · BI 개편



롯데건설은 최근 기업 로고와 브랜드 로고 개편 작업을 마치고 4월 11일부터 공식적인 로고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신규 개편된 기업 로고는 기존 롯데건설 로고의 기존 틀은 유지하되 건설기업으로서의 역동성과 강인함을 강조했다. 브랜드 로고는 기존에 사용하던 독수리 문양의 심벌을 유럽에서 전통과 명예를 상징하는 방패 안에 넣어 고급스러움을 한층 강조했다.

롯데건설은 신규 개편 기업 로고 및 브랜드 로고를 전국 건축 및 토목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며 공사 작업장 펜스는 물론 각종 사내외 제작물에 적용할 예정이다. CI, BI 개편 작업은 작년 11월 1일부터 착수해 5개월간의 작업 끝에 완료됐다. CI, BI 통일화 작업을 주관했던 롯데건설 홍보팀 관계자는 “기업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최근 금호건설, 우림건설 등이 기업 로고를 교체하는 등 건설업계는 기업과 브랜드 로고 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

**SK건설,
식목일을 맞아 행복나무 심기 행사**

SK건설이 4일 식목일을 앞두고 기존 입주 아파트를 대상으로 ‘행복나무 심기’ 행사를 실시했다. ‘행복나무 심기’ 행사는 ‘SK VIEW’ 브랜드의 첫 사업인 일산에 위치한 ‘은행마을 SK VIEW’를 비롯한 전국 11개 ‘SK VIEW’ 아파트 또는



SK아파트 단지에서 이뤄졌으며, SK건설 임직원 300여 명과 각 아파트 입주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각 단지 내에 기념수를 심거나 화단 조경을 위해 철쭉, 화양목, 자산홍 등 관목류를 심었다. 또 SK건설은 전 세대에 ‘행복’이라는 꽃말을 가진 꽃화분을 증정했다.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울산 우정2차 SK아파트’ ‘부산 부곡 SK아파트’ ‘광주 첨단 SK아파트’ 등 입주가 완료된 지 7~8년이 된 아파트들도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조경을 다시 보수해주게 돼 입주인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SK건설은 행복나무 심기 행사와 함께 ‘행복나무 이름 짓기’ 이벤트를 개최, 응모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추첨을 통해 유기농 농산물 ‘자연이랑’을 증정했다. 특히 1등은 추후 투표를 통해 선정해 소정의 상품과 작명자의 이름을 새긴 표석을 각 단지의 기념목 아래에 세울 예정이다.

GS건설, 입주인 동호회 초청 동반 라운딩 행사



GS건설이 아파트 브랜드 ‘자이’의 로열티를 높이기 위해 자이 입주인 동호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5일 GS건설은 제주 엘리시안 골프장에서 자이 입주인들과 연예인들이 함께하는

골프 대회 행사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3월 자이 입주인 중 순수 아마추어 40명을 선발해 강촌CC에서 예선 경기를 진행했다. GS건설 마케팅팀 부장은 “골프·바둑·산악·등반 등 자이 입주인 동호회를 중심으로 한 행사를 지원하고 입주자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며 “입주자들이 자이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